



東國大同窓會報

발행인 : 문선배 | 편집인 : 이계홍 | 04626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6길 2, 충무로영상센터 본관 526호 (재)동국장학회 | T. 02) 733-0303 F. 02) 733-0306 | 인쇄 : (주)한우리SJ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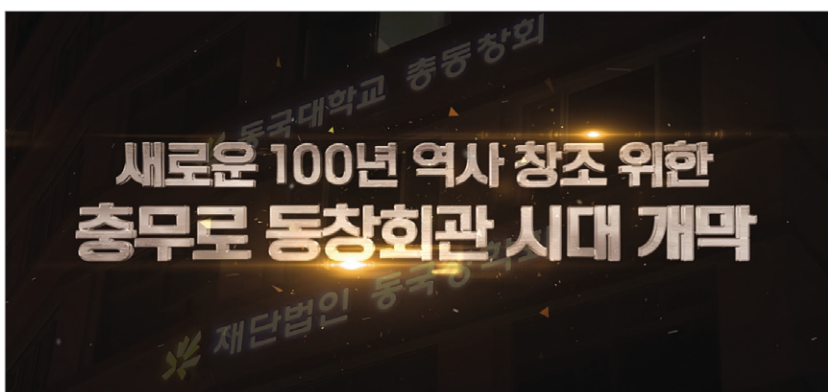
2025년 (불기 2569년) 1월 20일 (월)

http://dongguk.or.kr

제270호

동문 참여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총동창회 활성화 역량 강화 위한 2025년 사업계획 확정 핵심사업 19개, 일반사업 12개 등 9개 분야 31개 지표



총동창회 핵심 사업으로는 동문조직 미결성 지역 신규 결성을 유도한다. 즉 울산광역시, 충북(청주)지역 및 대학원, 학번, 학과 동호회를 중심으로 한 신규 동문조직 결성 및 단위 동창회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한다.

또한 90학번대 동기회 결성을 지원하고, 현장 위주 찾아가는 동창회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장 위주 찾아가는 동문회 활동

총동창회(회장 문선배)는 충무로 동창회관 시대 개막에 따라 동창회 활성화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총동창회는 1월 “올해 핵심사업 19개, 일반사업 12개 등 9개 분야 31개 지표를 통해 총동창회 충무로시대 안착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31개 사업 중 신규사업 4개, 계속 사업 12개, 보완 사업 15개로 구성되어 있다.

신규 사업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동창회관 시설 활용 최적화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50인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과 15인이 모일 수 있는 동문라운지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동문 대상 문화강좌와 취미 활동 모임을 운영한다. 지하철 충무로역 3호선과 4호선이 5분 안에 직접 연결되는 교통 편의성과 접근성을 최대한 활용, 기수별, 직장별, 학과별 모임을 갖도록 유도하고, 교양과 취미 모임을 갖도록 함으로써 동창회 참여의 동기 부여를 높인다.

문선배 총동창회장은 “다양한 동호회 모임을 중심으로 동문 조직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하고 “충무로 동창회관 시대 개막에 따라 새로운 100년 역사창조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총동창회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여 동창회 활성화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화를 위해 경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인천, 수원, 춘천, 경남, 제주 등 광역시 중심의 거점 동창회를 구축하고, 3월 부산, 5월 워크샵, 7월 대구, 10월 대전에서 중앙회 지부 회장단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임선기 사무총장은 “동창회 조직 체계 정립으로 동문들의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활동 관련, 장학회 이사 총 15명 중 2-3명을 신규 이사로 영입하고, 장학위원 300명 확보로 안정적 재원 확충 기반을 조성한다. 2024년 현재 동국장학위원은 154명이다.

총동창회는 또 회비납부 일반회원 2000명을 확보하고, 임원 분담금 납부율을 상향 제고하기로 했다.

동문 기업인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 운동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앙·지부회장단 모임 정례화 △해외지역 동문회 네트워크 강화 △동국가족 친선골프대회 △동국인의 밤 △리멤버 등산대회 △홈커밍데이 △소통홍보 시스템 강화 △80,90학번대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 등 기존의 프로그램을 보다 더 충실하게 주관하기로 했다.

이계홍 (국문65, 동창회보 편집위원장)

대학평가 4년 연속 톱10

2024년 종합순위 9위 달성

2024 중앙일보대학평가 종합평가

※()안은 전년도 순위, 점수는 290점 만점

순위	대학	점수	순위	대학	점수
1 (1)	서울대	220	12 (13)	아주대	160
2 (2)	연세대 (서울)	219	13 (16)	국민대	158
3 (3)	성균관대	215	14 (9)	서울시립대	152
4 (5)	고려대 (서울)	210	14 (15)	인하대	152
5 (4)	한양대 (서울)	203	16 (14)	한양대 (ERICA)	144
6 (6)	경희대	182	17 (20)	세종대	139
7 (7)	이화여대	179	18 (25)	광운대	137
8 (12)	서강대	177	18 (16)	한국외국어대	137
9 (8)	동국대 (서울)	173	20 (23)	경북대	134
10 (10)	건국대 (서울)	170	20 (18)	서울과학기술대	134
10 (10)	CAU 중앙대	170			

※ 종합평가는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 계열의 학과를 종합적으로 갖춘 전국 4년제 54개 대학 대상(KAIST, POSTECH 등은 이공계대학평가 대상)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후 가나다순 공동순위 적용

The JoongAng

모교는 중앙일보가 매년 발표하는 국내 대학평가에서 9위를 기록하며 4년 연속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평가는 ▲교육여건 ▲교수연구 ▲평판도 ▲학생성과 등 4개 주요 부문을 중심으로 종합평가 부문은 인문·사회·자연·공학계열 등을 고루 갖춘 종합대학 54곳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모교는 ▲교육여건 10위 ▲교수연구 15위 ▲평판도 10위 ▲학생성과 9위 등 전체 평가 영역에서 고르게 약진하며 종합순위 9위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교육여건 부문은 10위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16계단 상승했다. 신설 지표인 △학생 1인당 장학금 지표는 9위를 차지했고, 등록금 대비 장학금 순위도 10계단 상승해 학생 지원 정책의 성과를 보여줬다. 글로벌 역량 강화에서도 성과를 보여 △외국인 교수 비율 4위 △학위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 8위 △외국 대학 학점 교류 15위를 기록해 글로벌 경쟁력을 증명했다.

(관련기사 14면)

동국장학회 이사진 영입 박차

심산스님 신임이사에 참여하기로



▲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이사장 홍파스님은 공현으로 존경받는 장학재단을 만들기 위해 감포 무일선원과 부산 흥법사를 방문했다.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이사장 홍파 스님(불교63)은 한국불교대 대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선학84)을 새 이사로 영입한데 이어 부산 흥법사 주지 삼산스님(선학82)도 12월 2일 새로 영입했다. 이사장 홍파 스님은 이날 우학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경북 감포 무일선원을 찾아 장학회 이사로 선임된 우학 스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뒤이어 부산 흥법사를 방문, 심산 주지스님을 만나 동국장학회 신규 이사로 참여해 줄 것을 간곡히 권유해 승낙을 받았다. 새 이사로 선임된 삼산스님은 “동국장학회를 명문 장학재단으로 만들어 훌륭한 후배들이 배출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방문에는 문선배 총동창회장, 임선기 사무총장이 동행했다. 문 회장은 “총동창회는 올해 동국장학회 재원확충을 위해 핵심지표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속 가능한 총동창회 밝은 미래를 위해

추대위원회 구성해 선임 일정 확정, 제31대 회장·감사 선출 활동 시작



본회 제31대 총동창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추대위원회가 구성됐다.

추대위원회는 회칙 10조 1항에 의한 별도 '회장 및 감사 선임규정'에 따라 회장 및 감사 임기 만료 2개월 이전 △대학 △학과 △지역 △직능별 동창회 등 산하단체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상임위원

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본회는 새해 인사를 겸해 1월 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통해 추대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김진억 추대위원장 선임

상임위원회 의결에 따라 구성된 추대위원들은 1월 16일 충무로 동창회관 회의실에서 위촉장 수여식을 갖고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등 집행부를 구성한 후 1차 회의를 통해 △선임 일정 △공고내용 등을 논의해 확정했다.



확정된 일정은 ▲1월20일 후보자 등록 공고 (홈페이지, 동창회보, 문자메세지, SNS 등) ▲2월3일~2월28일

후보자 등록 접수 ▲3월13일 후보자 심사 및 선출 / 상임위원회 보고 ▲3월25일 정기이사회 보고 / 정기총회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추대위원들의 호선에 따라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진억 추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총동창회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인품과 경륜을 갖추고 모교와 총동창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춘 후보자를 발탁해 동국인이 자랑스러운 총동창회로 도약하는데 힘을 모으겠다" 밝혔다.

추대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집행부】△위원장=김진억(경영73) △부위원장=공영대(화학78) △간사=윤정식(국사교육86) 【위원】△윤미정(수교81) △김종필(행정82) △박태선(농학82) △윤병관(화공82) △김태현(불교84) △김미행(영문85) △이호중(행정85) △김강균(경행96) 이상 11명

김찬욱 (산업공학83, 총동창회 사무국장)

한겨울밤의 행복한 동행 ... '2024 동국인의 밤'

대학평가 4년 연속 TOP 10 ... 새로운 100년 역사 창조 위한 도약 다짐

'2024 동국인의 밤' 행사가 11월28일 장충동 엠베서 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성황리에 열려 겨울밤을 훈훈하게 덤췄다.

성연미(국교81) 前 KBS 아나운서와 김종필(행정82) 내일신문 편집국장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1부 의식행사와 영상 메시지 △2부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시상식 △3부 만찬 및 문화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전날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대설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은 '충무로 동창회관 시대 개막' 영상과 함께 새로운 100년 역사 창조를 위해 동국인이 자랑스러운 총동창회로 도약을 다짐했다.

또한, 모교가 달성한 대학평가 4년 연속 TOP10 안착 성과를 공유하며 상생하는 동창회로 지속 가능한 총동창회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가기로 마음을 모았다.

문선배 총동창회장은 환영사에서 "이사장 돈관스님과 윤재웅 총장께서 일본 출장에서 귀국 중 기상악화로 항공편이 결항되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모교가 달성한 성과를 자축하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품격을 갖춘 성숙한 동국인으로 도약하기 위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축제 한마당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인사했다.

갈라쇼와 합창단 오프닝

행사의 서막은 연극학부 동문들의 갈라쇼 공연으로 시작했다.

현역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는 박한솔(연극14) 이상연(연극14) 남가현(연극15) 정유근(연극17) 동문들이 OST 곡 버터플라이와 뮤지컬곡 Can't help falling in Love로 분위기를 띄우고 이어 동국동문합창단 40여명이 어느 산골 소년의 사랑이야기, 나는 나비, 붉은 노을 등 경쾌한 합창곡으로 축제의 문을 활짝 열었다.

충무로 동창회관 시대 개막

총동창회는 충무로 동창회관 시대 개막을 알리는 영상을 통해 총동창회 지나온 역사와 함께 ▲동문조직 활성화 역량 강화 ▲안정적인 재원 확충 기반 조성 ▲미래 성장 동력 양성 ▲모교 경쟁력 향상 이미지 등 새로운 100년 역사 창조를 위한 변화와 혁신의 액션플랜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축하와 화합의 축제 분위기 펼쳐져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시상식에 이어 2024년 행정고시에 최종 합격한 동문을 축하했다. 문선배 총동창회장은 일반직 5급 방준영(법학12) 동문과 보호직 5급 이주원(경행19) 동문에게 동국을 상징하는 목도리를 둘러주고 소정의 기념품을 전달했다.

또, 고려불화 대가인 혜담스님은 동문 화합과 총동창회 발전을 기원하며 2018년 루브르 박물관 출판작을 재해석 한 작품을 총동창회에 기증해 축제 분위기를 달궜다.

2024 동국인의 밤



▲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에 초점을 맞추면 링크가 나타납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해당 영상을 보실수 있습니다.

충무로 동창회관 시대 개막



회장 및 감사 후보자 등록 공고

본회 회칙 제10조(임원의 선임)에 의거, 제31대 총동창회장 및 감사 추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이 해당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 ◆ **후보자격** : 모교 학부 졸업자, 동창회 발전에 기여 및 동문사회에 신망을 받는 자, 본회 재정적 지원 가능 자
- ◆ **제출서류** : 입후보자 등록신청서(지정 양식), 이력서, 서약서(지정양식), 졸업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회보서), 비전제시(지정양식)
- ◆ **접수기간** : 2025년 2월 3일(월) ~ 2월 28일(금) 16:00까지
- ◆ **접 수 처** : 추대위원회 (Tel. 02-733-0303)

2025년 1월 20일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2025 정기 이사회 개최

본회 회칙 제1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25년도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오니 임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 **일시** : 2025년 3월 25일 (화) 오후 6시30분
- ◆ **장소** : 모교 중강당
- ◆ **회비** : 없음
- ◆ **안건** : 2024년 결산,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 회장 및 감사 후보자 선정결과 보고

2025년 1월 20일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2025 정기 총회 개최

본회 회칙 제15조(총회의 구성과 소집) 및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25년도 정기 총회를 개최합니다.

- ◆ **일시** : 2025년 3월 25일 (화) 오후 7시
- ◆ **장소** : 모교 중강당
- ◆ **회비** : 없음
- ◆ **안건** : 2024년 결산,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 회장 및 감사 선출, 기타

2025년 1월 20일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2024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대상 ... 김성재 4.19혁명 공로자회 명예회장



대상 | 김 성 재



김성재(정치58) 4.19혁명 공로자회 명예회장이 건국포장(2010)을 수훈하고 4.19 당시 모교 학생들이 최초 경무대 앞으로 진출하며 혁명의 방아쇠를 당긴 시대정신을 후대에 계승 발전시키고자 4.19 혁명 유공자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4.19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형편이 어려운 동지들에게 경제적 후원 등 물심양면의 후원을 아끼지 않은 공적을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인터뷰 기사 10면)

정치부문 | 전 재 수



전재수(역사교육' 90) 동문이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 발의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MBN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주관한 '참 관찮은 의원상(2023)' 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헌정대상(2023)' 을 수상하는 등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엄정한 평가를 받은 공적을 인정받아 정치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치부문 | 전 진 선



전진선(경찰행정' 79) 동문이 기초자치단체장인 양평군수로 당선되어 소통하는 행정 환경을 구축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생활 행정으로 (사)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이 주최하고 대한민국공헌대상조직위원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공헌대상(2023)' 에서 지방자치 부문 공헌대상을 수상하는 등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엄정한 평가를 받은 공적을 인정받아 정치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문화부문 | 박 순



박순(불교' 66) 동문이 동국대부속여자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화가로 활동하며 작품활동과 함께 역사 깊은 한국여류화가협회 이사장으로 현대 여성미술의 굳건한 토대를 다지기 위해 다양한 활동으로 문화 포교사로 활동한 공적을 인정받아 문화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아세아미술국제상, 녹조근정훈장, 한국예총문화상, 대한민국예술문화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학술부문 | 조 경 은



조경은(전자계산89) 동문이 모교 AI소프트웨어 융합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최근 5년간 국제논문 31편, 재직기간 국제논문 91건을 게재해 최근 5년간 성과평가 상위 10%이내에 해당되고 재직기간 연구비 입금액 약 120억원에 이르는 공적을 인정받아 학술부문에 선정됐다.

단체부문 | 4.19혁명 동지회



4.19 당시 불의에 항거하며 선봉에서 자유 민주주의의 수호에 앞장선 동문들로 구성된 4.19혁명 동지회(회장 라동영)가 역사의식과 함께 파사현정의 정신을 동국 정신으로 후대에 계승 발전시키는 노력을 인정받아 단체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공로상 | 단위 동창회 추천 공로자



총동창회는 지부지회, 학번, 학과, 대학원, 직능단체 등 단위동창회로부터 동문 화합과 단위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추천받아 공로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각 단위 동창회 추천 결과 ▲박선영(국제관계02) 직할경주동창회 사무국장 ▲손삼호(관광경영84) 대구경북지부 부회장 ▲장근일(경영81) 광주전남지부 사무총장 ▲손우진(국제통상11) 전주전북지부 총무 ▲유의태(불대원05) 불교대학원 총동문회 사무총장 ▲조남길(행대원 최고위과정) 행정대학원 총동문회 고문 등 동문들이 공로상을 수상했다.

남산 둘레길 걸으며 동국 정체성 공유

제2회 동국인 한마음 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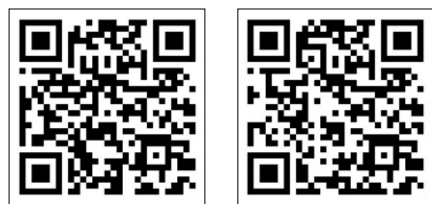
제2회 총동창회장배 동국인 한마음 페스티벌이 11월 8일 모교 만해광장에서 열렸다. 문선배 총동창회장은 “함께 남산 둘레길을 걸으면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아울러 동국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개최를 선언했다.

돈관 이사장은 “여러분이 주인공임을 잊지말라”며 재학생을 응원하는 축사를 했다.

윤재웅 총장은 총동창회와 총학생회가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만든 뜻깊은 자리임을 강조했다.

한마음 걷기대회 후 만해광장에서 열린 화합의 장은 백상 응원단과 댄스 동아

리 두둑치의 공연과 함께 치맥 파티가 펼쳐졌다. 재학생과 동문들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된 동국인 한마음 페스티벌은 문선배 총동창회장이 행사 운영 비용과 학교발전 기금 재원으로 1억원을 기부해 이루어졌다.



▲ 스마트폰으로 QR코드에 초점을 맞추면 링크가 나타납니다. 링크를 누르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석림동문회 19대 회장 돈관스님 재추대



사장 돈관스님을 만장일치로 제19대 회장에 재추대했다.

자랑스러운 석림동문인상에는 △수원 봉녕사 주지 진상스님 △마하뱃다사 주지 진오스님 △전국 비구니회장 광용스님 △뉴저지 원적사 주

모교 불교대학을 졸업한 스님들의 모임인 석림동문회 제19대 회장에 학교법인 이사장 돈관스님이 재추대됐다.

석림동문회는 12월 2일 모교 상록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 선출 및 자랑스러운 석림동문인상, 장학금 수여식 등을 진행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학교법인 이

지 성향스님이 수상했다.

장학금은 △서울캠퍼스 백상원 학감 일운스님 △혜광원 학감 동진스님 △백상원 회장 원묘스님 △와이즈캠퍼스 석림회 학감 청감스님 △사라림 학감 동원스님 △석림회장 평인스님이 받았다.

자랑스러운 동문인상 · 동국언론인상



인천일보 박현수 대표이사에게 각각 ‘2024년 자랑스러운 동문인상’ 과 ‘2024년 동국언론인상’ 을 수여했다.

주경 스님은 불교신문 사장,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등을 소임에 봉직했으며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총회의장,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소장 소임을 맡고 있다.

박현수 동문은 경인일보 편집국장, 인천분사 경영본부장 및 편집 제작국장,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대표이사, 인천시 대변인 등을 역임했고 현재 인천일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언론정보대학원 총동문회(회장 이웅현)는 11월19일 한국프레스클럽에서 ‘2024년 언론정보대학원 총동문회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교 발전과 총동문회 및 언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불교조계종 종회의장 주경스님(사진 좌)과

WISE캠퍼스 발전기금 2,000만원



을 준비하는 새로운 출발에 35만 동문이 함께 응원한다”며 “앞으로 자주 와이즈캠퍼스를 방문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류완하 와이즈캠퍼스 총장은 “많은 동문이 늘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문선배 총동창회장은 11월 12일 WISE캠퍼스를 방문해 발전기금 2,000만원을 기부했다.

문 회장은 “와이즈캠퍼스 설립 50주년

며 “학교에 소중한 정재를 기탁해주신 문선배 총동창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와이즈캠퍼스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지부지회 회장단 간담회



지부지회 회장단 간담회가 11월 14일 전주/전북지부 (회장 장세균) 주관으로 전주 금양정에서 열렸다.

문선배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지부회장단과 지역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는 총무로 동창회관 시대의 의

미에 대해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총동창회의 밝은 미래를 위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총무로 동창회관 개관으로 학교법인과 대학, 총동창회가 동반성장의 상생관계를 구축한 만큼 새로운 100년 역사 창조를 위해 동문들의 역량을 더욱 결집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충과 함께 미래 성장 동력을 양성해 모교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자는데 함께 뜻을 모았다.

따뜻한 차 한잔에 ‘후배사랑’ 담아



려하는 커피차 응원 이벤트를 이어갔다. 매년 6월과 12월 기말고사에 맞춰 ‘후배사랑’ 을 담아 재학생과 정을 나누는 여자총동창회만의 특별한 행사는 2023년 시작해 벌써 4번째를 맞았다.

이번 응원 이벤트는 농협경제지주에 근무하는 정창윤(사회85) 동문의 후원으로 밥차가 등장해 주먹밥과 식혜 400세트를 제공하고, 커피, 유자차, 코코아 등은 2,000잔을 나눠주는 풍성한 행사로 진행됐다.

여자총동창회(회장 윤미정)는 12월 9일 모교에서 기말고사 중인 후배들을 격

동국문학 잇단 수상으로 저력 과시

모교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동문과 재학생이 올해 국내 주요 문학상을 휩쓸며 저력을 과시했다.

소설 부문에선 김희선(대학원 석사) 동문이 장편소설 ‘247의 모든 것’으로 제32회 대산문학상을, 위수정(국문99) 동문이 소설집 ‘우리에게 없는 밤’으로 제57회 한국일보문학상을 각각 받았다.

시 부문에선 박소란(문예창작00) 동문이 ‘오늘의 시’ 외 6편으로 제70회 현대

문학상을, 기혁(대학원 박사) 동문이 ‘신파소설’로 제1회 신격호 사룻데 문학상 최우수상을 각각 차지했다.

송희지(4학년) 학생은 시 ‘루주’ 외 4편으로 제14회 문지문학상 시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2021~2024년 모교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출신 신춘문에 당선자는 10여명에 이른다. 2021~2022년 신인문학상 수상 등으로 등단한 동문은 15명이다.

대구경북지부 손진걸 회장 취임



대구경북지부는 12월19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대구경북 동국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손기범(영문81) 회장이 이임하고 손진걸(국사

84) 회장이 새로 취임했다. 손 신임회장은 "앞으로도 활동적인 대구경북지부를 이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7년간 동문회를 이끌어 온 손기범 이임회장과 이종호 사무총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법타 큰 스님을 비롯해 덕망 높은 스님들과 류완하 와이즈캠퍼스 총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가운데 와이즈캠퍼스 발전기금 1천만원 전달 식도가졌다. 문선배 총동창회장과 이육태 부산지부 회장은 이임회장과 취임회장을 격려하며 대구경북지부 동문들을 응원했다.

한의과대학 총동문회 이사회



한의과대학 21대 총동문회는 12월11일 충무로 동창회관 동문라운지에서 정기총회를 준비하는 이사회를 갖고 2024

년 성과분석과 2025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최유행(88) 회장을 비롯 박종웅(94) 수석부회장, 오창영(87) 감사, 변상우(08) 학술이사 등이 참석해 조직발전 방향과 회원 혜택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의제를 다뤘다. 최유행 회장은 "이번 이사회는 충무로 동창회관에서 실시해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동문 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총동창회와도 협력해 다양한 활동으로 동문회 위상을 높여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행정대학원 총동문회 무료 급식 후원



행정대학원 총동문회는 12월4일 탑골공원을 찾은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홍종표 총동문회장과 채성만 사무총장

등 동문회원 30여명은 탑골공원을 찾은 노숙인들과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4백여 명에게 닭도리탕과 파래무침, 떡 등 소중한 한 끼의 식사를 제공했다. 이번 무료급식 봉사

에 수석부회장 도심스님은 쌀 300Kg을 탑골공원 원각사 보궁 무료급식소에 후원해 자비행을 실천했다.

APP 총동문회 14대 이윤희 회장 선출



미래융합교육원(APP과정) 총동문회는 12월20일 용산구 국방컨벤션 충무홀

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14대 총동문회장으로 이윤희 회장을 선출했다. 이 자리에는 동문 33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윤희 신임 회장은 "동국대학교 APP 최초의 여성회장으로서 섬세한 리더십으로 '모두에게 사랑받는 동국대학교 APP'를 만들어 제2의 신화를 창조하겠다"며 "열정과 도전의 가치를 높이 들고 학교와 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정치학연구실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전통 있는 중앙동아리인 정치학연구실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11월 29일 상록원에서 6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히 개최했다.

1963년 유용진, 이병환, 김문환, 최상렬 선배들에 의해 창립된 정치학연구실은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학문적 탐구와 열정을 이어오며 대학내 정치학 연구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정치학연구실은 1984년 제1회 논문 발표회를 시작으로 학문적 담론을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특히, 매년 시행되는 논문 발표회는 연구실의 대표적인 학술행사로 자리 잡았으며, 연구실 구성원들의 학문적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장이 되었다.

1988년 중앙동아리로 승격된 이후 연구실은 학술 중심 동아리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졌다. 2013년에는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며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으며, 그 전통을 이어 이번 60주년 기념행사에서도 연구실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6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연구실의 발전사를 되돌아보는 기념집이 배포되고 선배와 후배 간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졌다.

또한, 정치학 연구의 미래와 동아

리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장도 열렸다. 참여한 선배들은 "정치학연구실은 시대와 함께 변화하며 학문적 성과를 쌓아왔고, 앞으로도 후배들이 학문과 실천의 균형을 이루는 연구실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명호 신임회장 취임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연구회의 회장으로 취임했다.

정치학연구실은 2025년부터 새롭게 진행될 세미나와 논문발표회를 통해 기존의 학술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연구실 측은 "앞으로도 정치와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동국대학교를 대표하는 학술 동아리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정치학연구실의 창립 60주년은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지속적인 학문적 열정과 실천적 활동으로 정치학연구실이 앞으로도 대학 사회와 학문적 담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움, 희망 · 樂樂樂 · 사랑, 위로



동국동문합창단(단장 강석우) 제3회 정기연주회가 11월 9일 모교 남산홀에서 열렸다. 김정근(경영97) 아나운서의 사회로 △1부 그리움, 희망 △2부 樂, 樂, 樂 △3부 사랑, 위로 순으로 진행된 공연은 영상을 통해서 감상할 수 있다.

보이는 뉴스 / 동국동문합창단 제3회 정기공연



▲ 스마트폰으로 QR코드에 초점을 맞추면 링크가 나타납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동영상 볼 수 있습니다.

모임은 달라도 '동국사랑' 마음은 하나 !!!

소통 공감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문화 공유하며 함께하는 동창회



❶ 82학번 동기회(회장 이종경) ❷ 83학번 동기회(신임회장 이제영) ❸ 84학번 동기회(신임회장 강완구) ❹ 85학번 동기회(신임회장 김정훈) ❺ 87학번 동기회(회장 한승범) ❻ 화학공학과 동문회(신임회장 윤병관) ❼ 경제학과 동문회(신임회장 김봉한) ❽ 불교학과 동문회(회장 이학송) ❾ 경영학과 동문회(회장 홍석표) ❿ 언론정보대학원 동문회(회장 이용현) ⓫ 경영대학원 동문회(회장 김진문) ⓬ 불교대학원 동문회(회장 해담스님) ⓭ 행정대학원 동문회(회장 홍종표) ⓮ 일반대학원 창업기술학과 ⓯ 미래융합교육원 동문회(신임회장 이윤희) ⓰ 뉴욕동문회(회장 신창균) ⓱ ROTC총동문회(신임회장 박상신) ⓲ 총동림동문회(회장 진철스님) ⓳ 동국합창단(단장 강석우) ⓴ 여자총동창회(회장 윤미정) ⓵ 대구경북지부(신임회장 손진걸)

“총무로 동창회관에서 만나요”

커뮤니티 활성화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준비중

총무로 동창회관 동문라운지와 회의실 개방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문의가 늘고 있다.

총무로 동창회관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편리하고 크고 작은 회의를 하기에 좋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으면 동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여자총동창회, 행정대학원 총동문회, 한 의과대학 총동문회 등 단위동창회에서 각종 회의를 실시했고, 새해에는 ROTC총동문회, 불교학과 동문회, 동

국문학인회에서 단위동창회 2025년 활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동문라운지와 회의실을 이용했다.

총동창회는 회의 장소 제공뿐 아니라 동창회관에서 동문들이 다양한 취미활동과 문화강좌 등 함께 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동문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2025년 사업계획에도 반영했다.

이에따라 TF팀을 구성해 프로그램 운영주체 발굴 및 세부 진행사항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

총무로 동창회관 회의실과 동문라운지를 이용하려면



총동창회사무처에 ▲모임명 ▲모임일시 ▲참석인원을 사전에 알리고 예약하면 된다.

■ 예약 문의 : 02-733-0303 (사무처)
010-3731-3991 (문자전용)

농학과 65학번 입학 60주년 기념

김경재 동문 초청 방미 우정 여행



미주지역 동국대 동창회장을 역임한 김경재(왼쪽사진) 동문은 지난 11월14일부터 보름간 65년도 농학과 입학동기생 7명(김철성, 신정인, 안명근, 정환민, 하창호, 홍훈유)을 미국으로 초청, 미 서부지역 유명관광지를 두루 안내했다. 이들 동기생들은 재학시절 농어촌연구부 씨름활동과 강의시간 출석 대신해주기 등으로 우

정을 나누어온 80세를 맞는 친구들이었다.

동기생들은 LA 도착한 날 김회장 소유 코요태힐 골프장에서 라운딩 후 15일부터 라스베이거스로 이동, 특급호텔인 베라지오 호텔에 여장을 풀고 나무둘레가 5~6m 되는 세콰이어 나무숲이 우거진 세콰이어 국립공원과 200m 바위산에서 낙하하는 폭포 요세미티 국립공원,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그랜드 캐년, 후버댐, 브라이스 캐년 등을 관광했다. 또한 호텔인근에서 개최되는 자동차 경주와 공연을 관람하며 자동차 이동 중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농장과 목장을 보면서 미국의 저력을 실감했다.

이번 여행은 김경재 동문이 80회 생일과 동대입학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동기생 7명의 항공료를 비롯 호텔 숙박비, 식대 등 경비 일체를 부담했다.

대학 재학중에도 명동에 당구장을 운영하며 사업성을

키워온 김회장은 이번 관광중 자신의 소유 세크로 멘타 Rio Rinda 물(상가 수채가 밀집된 곳)과 비사이야 몰도 보여주면서 이민 1세대로 일궈놓은 부를 과시하여 일행을 놀라게 했다.

김회장의 동문 사랑은 이것만이 아니다. 2000년부터 7년간 후배 재학생 200여명을 뉴욕, 워싱턴, 보스톤(하버드, MIT대학) 등에 견학시켜 미래 웅지를 키워 주기도 하고 고시 준비생에게 장학금을 지원, 7명을 합격시키기도 하였으며, 서울 동창회 동문 10여명씩을 LA로 초청, 주미 동문들과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아울러 동국 LA캠퍼스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모교에서는 2009년 김회장의 모교사랑과 미국 경제활동에 기여한 공을 기려 경제학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일행들은 김회장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입국에서부터 여행지 안내와 출국 수속까지 직접 소임을 다하는 헌신에 경의를 표했다. 아울러 각자 건강을 챙겨 10년 뒤인 90세에 다시 만나기로 다짐하기도 하였다.

글씨. 가능할까?

글 : 정환민(농학65)

ISO 9001 : ISO 45001

토공, 철콘, 상하수도, 포장, 비계, 습식방수, 보링그라우팅

Since 1992

믿음과 신뢰를 주는 대자기업(주)

원칙과 정도에 맞는 기술자의 양심으로 성실시공을 약속합니다.

회 장 조석규 (토목공학과)

0675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뒀로 154, 3F (양재동, 호성B/D)

Tel. (02) 579-7651~2 / Fax. (02) 579-7650

E-mail. djcc579@hanmail.net



대자기업(주)



(주)신일정공

회장 **이 수 복** (경영학과 197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416 (목내동) | Tel. 031) 491-3601

연안 유류 해상 운송업

(주)진양유조선

국내 해상유류수송의 35년 외길
 주)진양유조선은 오늘도
 그 자긍심과 책임을 다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회장 황 경 환

주소: 경북 경주시 서라벌대로 420, 2층
 전화: 054)745-3071~2
 팩스: 054)746-5556



조합 바른 장례 우수기업 선정
법인 한국의전협동조합

대한전통명장의 집

내 가족을 모시듯 정성을 다해 최상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ISO 9001 품질보증경영 · ISO 14004 품질환경보증 인증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전명 제23-명278호
전통장례명장

회장 **류 재 승**
 (장례비즈니스아카데미과정 · 200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01번길 98, 2층 (행신동 634-71)
 대표전화. 1644-2542 | Fax. 031-994-0147 | Mobile. 010-3788-1130



(주) 지엘이앤씨

G.L FIRE-FIGHTING & FIRE-ENGINEERING



전문 소방 공사 전문
 소방 자재 납품 전문
 도면 적산 견적 전문

대표이사

이 기 업

(국민윤리학과 1982)

18384 경기도 화성시 반월길40번길 56 (반월동)
 Tel. 031-267-1195 | Fax. 031-267-1196 | E-mail. leegy77@naver.com

(유)한양주류합동

HANYANG LIQUER WHOLESALERS CO.



대표이사 **유 원 표** (통계학과 75入)

- 총동창회 상임이사 -

24246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448 (근화동 748-1)
 Tel. 033-256-1291~2 Fax. 033-256-2484 E-mail. ywp55112@hanmail.net



동국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주캠퍼스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교수

하 동 현 (경영학과 75入)

TWOHIM

pocket TB-03
초소형 골프 거리 측정기

evo TB-05
삼각측정기능

Mini OLED TB-07
2컬러 OLED 뷰파인더

www.twohim.com 동문 선물용 할인판매 | 031-309-0878 🔍 투힘 거리측정기 | 검색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智異山大華嚴寺

색을 듣고 소리를 보는
홍매화

B2B BUSINESS

삼원아트주식회사

삼성전자 30년 총판, 넷기어 총판

01 프린팅 소모품

정품 잉크, 토너, 복사용지

02 삼성전자 가전제품

삼성전자 전 제품
(업무용, 납품가능)

03 넷기어

프리미엄 Wifi
공유기, 확장기, 무선랜카드

www.samwonart.co.kr
문의전화: 02-521-8857

아세아자산관리(주) 회장 김성재 (정치학 58) 동문

4.19 유공자로서 해야 할 몫 다해

‘2024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대상 수상자 … “모교와 총동창회에 더 많은 기여하겠다”

김성재 아세아자산관리(주) 대표이사 회장(정치과58)은 4.19 혁명에 직접 참가한 4.19유공자다. 그의 명함에는 ‘4.19혁명 공로자회 건국포장 수훈자(보훈단체)’라는 기록이 찍혀있다. 그만큼 4.19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강하다. 김 회장은 80대 중반이지만 노인티가 나지 않은 고운 얼굴이다. 영화배우 뺨치는 외모다. 그래서 젊었을 적 한때 충무로 영화가를 기웃거리기도 했다. 이 러저러한 이야기가 이어진 뒤, 지난해 11월 27일 열린 ‘동국인의 밤’에서 ‘2024 자랑스러운 동국인 대상’을 받은 소감부터 들었다.

“1961년 정치과 4학년 때 동국대 정두석 총장배 쟁탈 전국웅변대회에서 총장공로상을 받은 이래 1924년 자랑스런 동국인 대상을 받았습니다. 63년만에 동국인으로서 두 번째 받은 상이다 보니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은 앞으로 모교와 총동창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해달라는 뜻으로 알고 보다 애정을 갖고 모교와 총동창회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 회장은 6년 전 ‘동국인의 밤’에서 참석자 상품권 추첨이 있을 때, TV 세트를 받았다. 이때 수상 소감으로 앞으로 매년 동국인의 밤에 TV 수상기 2대씩 기증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 4.19혁명 시위 당시 상황을 말씀해주세요.

“아, 우리 대학이 대단했지요. 고대가 4.18로 유명하지만 그건 강패들한테 습격을 받아서 유명했을 뿐, 우리 대학의 4.19 활동에 비하면 미미해요. 고대는 4.19 유공자가 43명(생존 16명)인데 반해 우리 동국대학은 46명(생존 20명)으로 전국 최고입니다”

4.19 당시 동국대는 전교생의 대부분이랄 수 있는 2,000명이 1, 2진으로 나뉘어 서울시청-국회의사당(현 서울의회)-광화문-경무대(오늘의 청와대)로 진출했다.

“4월 19일 오전 10시경 1진은 모교를 나와 을지로-관철동으로 진출했고, 20분 후 2진은 퇴계로-신세계백화점 방향으로 진출했지요. 우리는 모두 국회의사당에서 만났는데, 김철봉(법과)이 갑자기 “경무대로 가자!”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동국대 시위대가 최선두에 서서 경무대로 진출했어요. 완전무장한 경찰이 광화문 앞, 효자동에 배치돼 접근하는 시위대에 발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 도로에 갖다 놓은 수도관을 방패삼아 밀고 올라갔죠. 그런데 경무대 앞에서 경찰의 발포가 시작되고, 노회두 군이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4.19혁명 첫 희생자가 난 것이지요”

그때의 상황을 어제의 일처럼 기억하는 김 회장은 자유당 정부가 붕괴되자 동국대가 종로경찰서를 접수, 치안 유지에 나설 때 함께 참여해 거리 청소를 하고, 교통 안내에 나섰다. 4.19혁명 대오의 일원으로 현장을 지킨 그는 1961년 정치학과 회장으로도 활약했다. 김 회장은 이런 공로로 2018년 4.19혁명공로자회 대상, 2022년 4.19혁명기념회관에서 열린 4.19혁명공로자회 제26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명예회장에 추대됐다. 지난해엔 8.15기념 민족공훈 시상식에서 국가보훈공훈 국무총리



상을 수상했다. 4.19 관련한 행사나 학술세미나 등에 그는 언제나 봉사하고 배려에 힘썼다.

“혁명의 과실을 따먹기보다 혁명의 정신을 살리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나선 길입니다”

물론 이렇게 배려와 헌신, 성금 기탁은 성공한 기업인의 길을 걸어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4.19세대로서는 성공한 기업인으로 널리 회자된다. 사업을 벌여 큰 돈을 벌었다고 해도 기념 행사의 스폰서로 나서거나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는 주저없이 나선다.

“내 일생을 관통하는 기본 정신은 4.19의 뜨거운 정신이 심장에 박동 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결코 잊거나 외면할 수가 없지요”

김 회장은 경주 대부호의 후손이었다. 경주중고등학교 재학 시절, 친구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대학에 진학해서도 넉넉하게 살았다. 경주최씨가 1만석을 했다면 김 회장 가대는 8,000석을 한 재력가로 소문나 있었다.

그는 대학 졸업후 서울에 남아 취직자리를 찾아 배회하던 중 어느날 충무로에서 배우 모집 광고를 보았다. 외모에 자신이 있었던 그는 배우 모집에 응시해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5인 중 한 명으로 선발됐다. TV도 나오지 않은 시절, 영화 단역으로도 출연했다.

그러나 주연급 이외는 배고프다는 것을 알고 충무로를 떠나 쌍룡양회 대리점을 운영했다. 그후 한남고속 포항영업소장, 대능 부장을 거쳐 1981년 신아자동차시스템(주)을 창업해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이때 전국 하수종말처리장 자동화시스템 설치 작업에 참여해 많은 돈을 벌었다. 전국적인 공사를 신아자동차시스템이 거의 독점적으로 시행했던 것이다.

- 경쟁이 심한데 사업권을 따낸 비결은 무엇입니까?

“일단 사업 목표가 주어지면 거래처나 관공서를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찾아가죠. 설계 도면이나 사업계획안, 또는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득을 합니다.

그 바탕은 성실성과 친화력이지요. 이를 바탕으로 접근해갈 때 처음에는 거부 의사를 보이다가도 진지한 열정과 끈질긴 설득에 감동을 받고 공사 승인을 해줍니다”

당시만 해도 중소기업 육성법에 따라 수의계약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설사 공개입찰이라고 해도 공사를 따낼 수 있는 철두철미한 준비와 설득력있는 설명으로 목표를 달성했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우리 가대를 설명하자면, 증조부가 8,000석을 했고, 할아버지 6형제가 각각 1,200석의 농지를 상속받았지요. 그리고 제 아버지가 그것을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는데, 해방 직후 토지분배 정책에 따라 소작인에게 2분의 1을 빼앗겼습니다. 그후 부친이 사업에 실패하고, 가대가 몰락하였으나 내가 사업을 일으켰지요”

김 회장은 경주시내 한 복판 알짜배기 땅에 농산물공판장을 차렸다. 이외에도 서울과 경주, 대구에 상당한 부동산을 갖고 있고, 지금은 일선에서 물러나 아들에게 경영권을 맡기고 있다. 재산 상속도 해주었다.

- 인생관을 말씀하신다면?

“첫째, 말에 대한 책임이죠. 나는 스스로 말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천합니다. 그것이 신뢰로 돌아오고, 사업을 통해서도 그 덕을 봅니다. 다음으로 ‘베를터’는 주의죠. 베푸니까 돌아오더라는 철리를 배웠습니다”

인터뷰한 이날도 김 회장은 굳이 저녁식사를 하자면 서 동창회 구성원들을 모두 식당으로 안내했다. 김 회장의 좌우명은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산다”는 것. 100을 가졌다면 70은 갖더라도 30은 조건없이 남에게 주라는 것이다.

- 모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솔직히 나는 5대째 내려오는 교회(경주 제일교회)가 족입니다. 그래서 불교 종립학교인 모교와는 알게 모르게 거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이 먹고, 이런 과분한 상까지 받으니 모교와 총동창회에 애정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모교와 총동창회 일이라면 물질양면으로 돕겠습니다. 모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옛 명예를 되찾아달라는 것입니다.”

- 총동창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총동창회가 충무로 시대로 접어들어 새롭게 출발한 만큼 적극적으로 역동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동문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주세요”

김 회장은 부인 송지혜(84) 여사와의 사이에 장남 김강현, 2남 김승현을 두고 있다. 김 회장이 부인 송 여사를 만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라고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당시 김 회장 누나가 경주 월성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중간고사·기말고사 때는 반장인 송지혜 어린이를 불러들여 채점하도록 했다. 이때 예쁜 송 어린이를 보고 마음에 두었다가 청년기에 다시 만나 결혼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가정적으로도 대단히 행복해 보인다.

이계홍 (국문65, 동창회보 편집위원장)

(주)리처스 엘앤에이치 부회장 김정훈 (정외과 85) 동문

총동창회 회의실에 동문 위한 평생교육원 개설

총동창회 회의실에 평생교육원 개념의 강좌가 개설된다. 개설 강좌의 주인공은 정외과 85학번 김정훈 (주)리처스 엘앤에이치 부회장 겸 성공회대 겸임교수다. 85학번 동기회장이자 108합장단 단장을 지낸 김정훈 부회장은 총동창회 사무실이 인사동에서 충무로역 동국대영상센터로 이주하고, 대소회의실이 50명과 15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을 보고 동문을 위한 평생교육원을 개설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 그를 만나 강좌 개설의 취지와 목표 등을 알아보았다.

- 총동창회 회의실에 평생교육원을 세우기로 한 이유는?

“그동안 전남과학대 교수, 성공회대 겸임교수로 근무하면서 ‘미디어의 이해’ ‘커뮤니케이션 이론’ 등을 강의해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뒀습니다. 이와함께 문화강좌를 열어 성과를 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강좌를 개설해 총동창회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자는 복안을 갖게 된 것이지요.”

그는 무엇보다 “강좌 개설은 총동창회 동문 참여도를 높이자는 데 기본 뜻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침 동창회 사무실이 충무로 역 바로 옆이라 접근성이 좋고, 모교와의 거리도 가깝고, 강좌 공간도 충분하 확보돼 있어서 평생교육원 개념의 문화강좌를 개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 강좌의 컨셉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강좌 참여 대상은 우선 은퇴기를 앞둔 동문들로 기본 컨셉을 잡았습니다. 제 나이 또래인 58세 전후가 되겠지요. 그러나 반드시 이 연령층에 국한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하되, 동문사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강좌를 열 계획입니다. 참여 대상은 동문들로 구성하되, 차차 일반 사회에도 개방할 계획입니다.”

- 어떤 강좌를 열 계획인가요.

“우선 재테크 강좌를 열겠습니다. 우리 대학에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계 출신 동문들이 많이 포진해 있어 이들 중 대표적인 전문가를 초빙할 계획입니다. 현장 실



무를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성공적인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닦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는 항상 불확실해서 불안하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오늘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평생 소득 활동을 했지만 자녀 교육 등 가족을 부양하느라 뚜렷한 재산을 모은 것도 없다. 이런 때 소액으로 재테크를 하여 딱딱따박 월정 소득이 생기는 재테크는 필수 불가결한 노후 설계 과정이다.

물론 자본이 넉넉한 동문들도 있다. 제대로 재테크에 대한 스킬을 익혀 좀더 부를 쌓을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제시해준다. 이런 기초의 총합으로 재테크 강좌를 열겠다는 것. 이밖에도 창업 교실, 부동산 투자 강좌도 열 계획이다. 금융과 부동산 환경, 임대업의 장 단점, 돈이 되는 투자처 등을 동문 전문가를 초빙해 강좌를 갖겠다는 설명이다.

강좌는 또 모교의 건학이념이 불교인 만큼 불교미술 강좌도 개설할 예정이다. ‘알기 쉬운 불교강좌’도 개설할 목표로 중지를 모으고 있다. 이와함께 노래교실, 여행영어, 스피치 강좌도 가질 예정이다. 주 3회 강좌로 모집 인원은 20~30명 수준이다.

“강사는 동문 출신 전문가를 초빙하되 재능 기부 형식을 바라지만, 인기 강사에겐 강사료를 지급할 것입니다. 수강료는 최소 비용으로 책정했습니다.”

오는 3월 개강을 목표로 학기 개념(2학기 기준)으로 운영한다. 김정훈 부회장은 모교 동문들로 구성된 108합장단을 2019년 창단해 활동을 벌이고 있다. 부처님 말씀을 찬불가 형식으로 노래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불교가 젊은층에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흔히 기독교 찬송가는 서양음악, 불교 찬불가는 국악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악적 소재를 넓히는 찬불가도 뒤따라야겠지요. 우리 합창단은 불자는 물론 일반 대중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합창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합창단이 레퍼토리를 발표할 때마다 객석의 호응이 높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85학번 동기회장이기도 하다. 80년대 격동기에 학창 생활을 해온 동문들이라 연대의식과 참여의식이 강하다. 시대적 아픔을 공유한 세대인지라 결속과 유대감이 유독 강하다는 것. 그래서 평생교육원 강좌의 인적 자원도 기본적으로 갖출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평생교육원 강좌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꾸밀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익한 강좌가 필요하겠지요. 강좌의 주된 목표는 동문사회의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에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간이 확보되었는데 동문들이 자주 드나들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고, 교양과 지식, 윤택한 생활을 위한 강좌를 한두 과목 들으면서 총동창회와의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총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교육원 강좌 설립 의의를 거듭 설명하는 김 부회장은 차후 일반인에게도 개방할 수 있도록 강좌를 운영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이계홍 (국문65, 동창회보 편집위원장)

제철소 환경에 특화된 위치 검출기

www.pos-tech.co.kr

회전형 센서	직선형 센서	마그넷 센서	엔코더
컨트롤러	컨버터	Display	기타

POSTECH CORPORATION (주)포스텍 대표이사 **이명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38-21,이앤씨벤처드림타워3차 1001호
Tel. 02-865-1595 | Fax. 02-865-1594 | E-mail. ptle@pos-tech.co.kr

대한 불교 조계종 108평화보궁 근본도량 수락산 도안사

정기법회 및 기도

- 새해 해맞이 특별기도 : 양력 1월 1일~3일
- 신중기도 : 매월 음력 1일~3일
- 약사기도 및 방생 : 매월 음력 8일
- 지장기도 : 매월 음력 15일~18일
- 관음기도 : 매월 음력 24일
- 광명진언 1080독송기도 : 매월 둘째주 금·토·일요일
- 108산사기도회 영상순례 : 매월 넷째주 금·토요일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145길 99 www.doansa.or.kr
전화 : (02)936-5936, 931-5557 팩스 : (02)935-5936

로터스관 하반기 착공 추진

윤재웅 총장 시무식에서 사업 추진 밝혀



관 신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면적 5천여평 규모로 2025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로터스관은 2014년 '건학 108주년 기념관 건립보사'를 선포하면서 본격화 됐으며 이후 부지 매입 완료 후 2018년 기공식을 갖고 각종 심의를 마친 상태다.

이와 함께 건학 120주년을 앞두

고 올해 TF를 신설하고, 교내 수영장 부지를 민자 사업을 통해 문화 복합시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윤재웅 총장은 상록원에서 열린 건학 제119주년 시무식에서 "모든 동국 가족의 오랜 염원이었던 혜화문 일대 로터스

'팔정도 청동여래입상' 봉불 60주년

팔정도 동판 제막하고 '천사불여일행' 다짐



모교는 팔정도 광장의 부처님 입상 봉안 60주년을 맞이해 11월5일 청동여래입상 봉불 60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팔정도 광장 중앙에 위치한 부처님 성상의 정식 명칭은 '팔정도 청동여래입상'이다.

봉불 60년을 맞이한 입상은 前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김영중 선생의 작품으로 1964년 개교 49주년을 맞아 총학생회가 건립을 추진해 4·19혁명 당시 파손된 혜정 손석재 보살 동상을 녹여 5월19일 착공, 11월 5일 봉안됐다.

225cm 높이의 입상은 연꽃대좌 위에서 모든 중생의 온갖 근심과 걱정을 없애주는 시무외인 수인(手印)과 중생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게 하는 여원인 수인을 하고 있다.

다리에 양감을 표현해 중생에게 다가가는 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는 1월6일 서울 캠퍼스 정각원에서 '불기 2569년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신년하례식'을 거행하고 팔정도 동판 제막식을 가졌다.

팔정도 동판은 동국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알고 올바르게 행할 수 있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지름 2.1m, 무게 400kg으로 구리 90%와 주석 10%의 청동합금으로 만들었다.

이사장 돈관스님은 "내년은 건학 12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올해 여러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동국 가족 여러분에게 '천사불여일행'의 화두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 가지, 만 가지 생각보다 한 번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뜻을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자"면서 재학생 전법과 대학평가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더욱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자는 취지의 당부도 전했다.

공학페스티벌 장관상·공로상 쾌거



모교는 '2024 공학페스티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공학교육혁신 공로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 대회는 총 140여개의 캡스톤디자인 작품이 예선을 거친 후, 13개 작품이 본선에 진출했다.

동국대 '수맥' 팀(팀장 최윤지, 김도윤, 마태은, 오희민, 이진호, 정서진, 조준현, 최유진 학생)은 '사용자 정의 작업 수행 보급형

협동 로봇'을 출품해 본선 심사와 공대생 심사위원단, 국민심사위원단의 투표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박정애 동국대 공학교육혁신센터 연구원은 공학교육혁신 유공자 공로상을 수상했다.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 선정

모교 산학협력단(단장 이경이)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4년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는 국가연구과제를 통해 지원된 연구시설·장비비(유지·보수비)를 별도의 통합관리 계정에 적립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연구 기간 종료 후에도 필요에 따라 연구시설과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연구 기관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인프라 관리가 가능해진다.

선정된 기관들은 1월 1일부터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정식 운영된다.

WISE캠퍼스 청년 불자 수계법회



WISE 캠퍼스 1,800여명의 청년 불자들은 이사장 돈관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수계하여 참다운 불제자의 삶을

WISE 캠퍼스는 11월 12일 교내 문무관에서 2024 WISE Young Camp '주인공'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행사에서 재학생과 교직원 1,800여 명이 와이즈 영캠프와 불교의 미래를 기원하며 동참해 수계를 받았다.

발원했다. 영캠프는 불교동아리 회장단들로 구성된 학생기획위원단이 직접 기획한 행사로 수계법회를 시작으로 어울림 한마당, 뮤지션 공연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행사로 이어졌다.

'2024 동국 인터비즈' 성황리 개최



모교가 주최한 '2024 동국 인터비즈'가 12월 3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바이오/메디컬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200여 명의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해 네트워킹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협력 가능성을 탐색했다.

행사에서는 ▲바이오 관련 전문가 초청 강연 및 패널 토크 ▲사전 매칭을 통한 전문가 1대1 창업 상담 ▲기업 포스터 전시 및 기술 소개서 배포 ▲대학 보유 핵심 기술 소개 및 주제별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창업 상담회에서는 '투자/IR, 정부지원사업, 세무/회계, IP&기술거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WISE캠퍼스 교육국제역량 인증 획득

WISE캠퍼스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2024년 교육국제역량 인증제에서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 동시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기간은 올해 3월부터 약 1년간 유효하다.

교육부가 2011년 도입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국내 학생 국제화 역량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대학은 불법체류율과 유학생 관리 및 성과 등을 평가받아 국제화 역량을 갖춘 대학임을 교육부에 인증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WISE캠퍼스는 외국인 유학생 특화 교육,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자막·번역 시스템 지원, 외국인 유학생 전용 원격강좌, 지역특화형 비자 등을 통한 취업과 정주 지원을 돕고 있다.

‘초허당 장학금’ 19년째 장학금 전달



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해 사범대학 7개 학과와 예술대학 미술학부 4개 전공에서 각1명씩 총 11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초허당 권오춘(영문57) 석좌교수가 사범대·예술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해 11월 26일 ‘초허당 장학증서 수여식’이 진행됐다.

이번 장학금은 사범대학과 예술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가정형편이 어

권 교수의 호(號)를 따 명명한 장학금이다. 현재 모교 교육대학원 종신 석좌교수로 재직중인 권 교수는 2005년부터 19년간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기부금 누적액은 약 113억원에 달한다.

‘최진식 고시장학금’ 14년째 고시 준비생 후원



장학금이 전달됐다. 최 회장은 이외에도 고시반지원기금, 국제통상학과 및 경제학과기금 각 1,000만원 등 총 2억원을 기부했다.

정·입법고시와 외교관후보자, 법원행정고시 1·2차 및 최종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최진식 고시장학금’ 수여식이 12월 18일 진행됐다. 이날 13명의 학생에게 400만원씩 총 5,200만원의

국가고시 준비생에 대한 최진식(무역77) (주)SIMPAC 회장의 후원은 올해로 14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 회장은 2006년부터 모교에 약 22억 8,0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며 모교 발전과 후학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화학과 발전기금 3억 1천만원 기부



문동호(화학64) 동문은 12월16일

모교를 방문해 화학과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3억1,000만원을 기부했다. 문 동문은 “대학 시절 공부하던 기억이 떠올라 화학과 후배들을 위해 기부를 결심했다”며 “이번 기부금이 모교와 화학과 발전을 위해 잘 쓰였으면 좋겠고, 모교를 위한 동문의 마음이 하나하나 모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동국기업인모임 장학금 7천만원 기부



동국기업인모임 DHC 최대식(회계

79) 회장은 11월 28일 모교를 방문해 장학금 7천만원을 전달했다. DHC는 동국대 동문 기업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 창립해 활발한 대내외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2억 4,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후학 양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올해도 10명의 장학생에게 DHC 장학금을 지급했다.

모교 발전기금 2천만원 전달



(주)제일테크노스 나경미 회장(정치외교70)이 모교에 발전기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테크 플레이트 사업체인 (주)제일테크노스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나 회장은 지난 6월 개최된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 후원의 밤’ 행사에서 2천만원 기부 의사를 밝히며 모교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나경미 회장은 “모교 위상을 드높일 뛰어난 후배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금을 전달한다”며, “모교의 발전과 후학 양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기쁠 것 같다”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84학번 동기회 농구부 육성기금 전달



84학번 동기회(회장 김동규)가 모교 농구부 육성기금으로 1천만원을 기부했다.

입학 30주년 홈커밍데이를 계기로 결성된 84학번 동기회는 동산회(등산), 동막골(골프), 동사모(사진) 등 다양한 소모임 활동을 통해 동기간 친목을 다지며 매년 십시일반 동기들의 뜻을 모아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84학번 동기인 이호근(경영) 감독이 지도하고 있는 농구부를 2021년부터 후원하며 서포터즈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의과대 교육환경 개선 기부금 전달



한의과대학동문회(회장 최유형)와 한의과대학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 김윤조)는 ‘일산캠퍼스 한의사국가시험준비실 교육환경 개선 기부금 전달식’을 공동으로 주관해 11월 7일 강남 영도한의원에서 총 1,364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졸준위 후배들의 요

청으로 17년 된 준비실의 낡은 의자를 교체하기 위해 동문회가 ‘국가준비실 의자 기부 모금 캠페인’ 진행을 통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준비실 내 100석의 좌석에 일정액(11만6,000원)의 후원과 함께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본인의 이야기와 이름을 새기는 내용으로 총 100명의 동문이 참여해 1,164만원의 기금이 마련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동문회 최유형 회장, 박종웅 수석부회장, 김윤조 위원장이 참석했다.

종호스님 발전기금



모교 재단이사이자 기획부총장을 역임한 종호스님(선학81)이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에 발전기금 2,500만원을 기부했다. 종호스님은 “종립학교 동국대의 발전이 불교의 발전”이라며 “학교 발전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는 기부 취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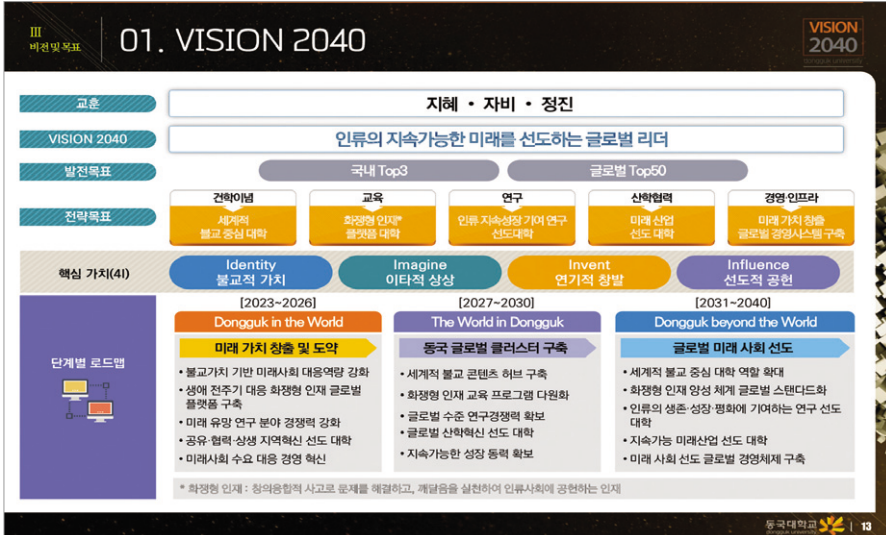
배우 신민아 굿피플예술인상 상금 전액 기부



배우 신민아(연극03) 동문이 ‘제14회 아름다운예술인상’ 시상식에서 굿피플예술인상으로 수상한 상금 전액을 기부했다. 굿피플예술인상은 신영균예술문화재단이 선행으로 미담을 남긴 예술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드라마 ‘아름다운 날들’, 영화 ‘화산고’로 연기활동을 시작한 신 동문은 불우 어린이와 여성환자, 독거노인을 돕는 따뜻한 기부활동을 이어왔다.

모교 '열린전공학부' 로 미래혁신인재 키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할 융합형 인재 양성해 '국내 TOP3' '글로벌 TOP50' 추진



모교는 개교 117주년 기념식에서 '동국 메타 플랜 120'을 발표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원력을 세웠다.

'동국 메타 플랜 120'은 개교 116주년 발표한 '동국 미래비전 2040'의 1단계인 '미래가치 창출과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 미래 사회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생애 전주기 대응 화쟁형 인재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학사제도 개편, 학과 신설, 학문 간 경계를 넘어선 융합교육 등 교육 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융합형 인재를 키워낸다는 방침이다. 급변하는 신기술·첨단 분야의 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대학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공계 중점 육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AI, 차세대 반도체, 이차전지, 지능형 로봇 등 미래 사회를 선도할 분야에 세계 상위 1% 연구자를 3명 이상 육성·초빙하고 이 분야 학생 정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정원이 45명 증원된 데 이어 첨단 융합대학 시스템반도체학부의 정원을 14명 증원했다.

또, 다양한 학문 간 융합을 장려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학과별·전공별 장벽을 허무는 '융합전공제'를 도입했다. 학과(전공)와 학과(전공)가 융합해 새로운 전공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융합전공제'는 입학한 학과와 별개로 본인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원소속 전공과 관계없이 융합전공 최저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면 융합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국내 TOP3'와 '글로벌 TOP50' 목표 제시

개교 116주년인 2022년 발표한 '동국 미래비전 2040'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를 비전으로, 2040년까지 '국내 TOP3'와 '글로벌 TOP50'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추진할 5가지 전략목표로는 ▲건학이념 세계적 불교 중심 대학 ▲교육 화쟁형 인재 플랫폼 대학 ▲연구 인류 지속성장 기여 연구 선도대학 ▲산학협력 미래산업 선도대학 ▲경영·인프라 미래가치 창출 글로벌 경영시스템 구축 등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Identity-불교적 가치 ▲Imagine-이타적 상상 ▲Invent-연기적 창발 ▲Influence-선도적 공헌 등 4가지 핵심가치(4I)를 토대로 3단계 로드맵 ▲Dongguk in the World-미래가치 창출 및 도약(2023~2026년) ▲The World in Dongguk 동국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2027~2030년) ▲Dongguk beyond the World 글로벌 미래 사회 선도(2031~2040년) 등을 통해 국내 TOP3와 글로벌 TOP50 달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26년까지 추진 과제

동국 Meta Plan 120은 ▲창의와 도전 ▲개방과 협력 ▲디지털 전환이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개교 120주

년인 2026년까지 추진할 핵심과제 25개와 세부과제 50개 실행을 통해 '혁신적 상상력으로 인류에 기여하는 동국'을 목표로,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라는 슬로건을 걸고 ICT 기반의 새로운 대학 경영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5가지 영역별 전략 및 핵심과제는 ▲건학이념 세계적 불교 중심 대학 기반 확립 ▲교육 소프트웨어 화쟁형 인재양성 ▲연구·산학협력 창의 융합 연구 및 산학협력 체계 고도화 ▲경영·인프라 미래사회 수요 대응 경영 혁신 ▲대외협력 기부금 모금 기반 고도화 및 1,000억 모금 등이다.

2025학년부터 '열린전공학부' 신설

모교는 2025학년부터 '열린전공학부'를 신설해 다양성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무전공 입학 제도를 도입한다.

신설되는 '열린전공학부'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MINT(Multi-INter-Trans)' 3단계 교육모형을 도입했다.

MINT는 'Multi' 'INter' 'Trans'의 약자로, 각각 존중·윤리와 통합, 창조의 마인드를 가진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열린전공학부 학생들은 광역단위로 입학해 1년간 자유롭게 전공을 탐색한 후 37개의 전공 중 하나를 선택한

부여군공동브랜드
Goodtrae
굿트래 Goodtrae
좋은들에 좋은상품 부여군에서 품질을 보증합니다

다. 다양성에 기초한 교양교육 과정(Multi)에서 출발해 학문 간의 공통성을 이해하는 다전공 교육과정(INter)을 거쳐 지식의 융합성을 기반으로 문제 해결의 보편적인 해답을 찾는(Trans) 과정으로 진행된다.

MINT 교육과정은 창의혁신 영역, 전공탐색 영역, 비교과 영역으로 구성된다.

먼저 '창의혁신 영역'은 공통교양 교육과정이다. 미래 사회 적응 및 집중 역량 함양에 필요한 'AI와 인간' '문화 콘텐츠' '지구촌 문제'를 주제로 다양한 탐구가 진행된다. 전공을 결정할 때 전공지식을 자유롭게 습득하고 6학기를 마치면 '융복합 열전세미나' 과목 이수를 통해 실질적인 사회문제를 융합적 관점에서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과제를 수행한다.

두 번째 '전공탐색 영역'은 진로 탐색 교육과정이다. 학생들은 '커리어디자인' 수업으로 적성과 진로를 탐색한다. 또한 DIY(Do It Yourself) 전공 탐색 수업을 통해 37개 전공에서 제작한 동영상 강의를 듣고, 전공 겸직 교수와 상담해 적성 유무를 확인한다.

마지막 '비교과 영역'에서는 동국대의 학생 역량 통합관리 시스템인 '드림패스'를 활용해 학생들이 흥미와 진로를 탐색하고 진단검사 결과에 기반해 전공을 설정하도록 관리한다.

이에따라 상시 운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전공 탐색 체험과 상담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학업에 적응하고 전공을 결정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4년 연속 중앙일보 대학평가 톱10

모교는 2024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종합순위 9위를 기록해 명실상부 톱10 대학으로 기반을 다졌다.

모든 분야에서 약진했지만 학생 장학금 및 글로벌 지표 등 교육 여건 부분의 성과가 돋보였다.

특히, ▲학생 1인당 장학금(9위) ▲외국인 교수 비율(4위) ▲학위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8위)로 4년 연속 톱10 안착을 견인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강점을 보여왔던 학생 창업 및 현장실습 등 학생성과 부문도 상위권을 유지했으며, 신설 지표인 고교생 선호 대학에서 5위를 기록해 수요자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교수 연구 부문은 △국제학술지 논문당 피인용 7위 △교수당 외부 연구비 9위 △교수당 국제학술지 논문 11위 △인문사회 교수당 국내논문 8위 △인문사회 교수당 저역서 8위, 신설 지표인 △국제협력 논문에서도 12위를 기록해 연구 역량 강화를 입증했다.

기부금 많이 받은 대학

순위	대학	기부금(원)
1	고려대(서울)	810억6085만
2	서울대	782억8768만
3	연세대(서울)	733억4361만
4	성균관대	213억7064만
5	울산대	192억9927만
6	이화여대	172억9766만
7	한양대(서울)	128억3024만
8	숙명여대	117억9821만
9	동국대(서울)	101억6097만
10	경희대	90억2426만

인용 논문 많은 대학

순위	대학	논문당 FWCI
1	광운대	0.75
2	세종대	0.67
3	영남대	0.65
4	연세대(서울)	0.65
5	경희대	0.62
6	서울대	0.62
7	동국대(서울)	0.61
8	한양대(서울)	0.60
9	울산대	0.59
10	고려대(서울)	0.59

고교생 선호 대학

순위	대학
1	서울대
2	성균관대
3	연세대(서울)
4	건국대(서울)
5	동국대(서울)
6	고려대(서울)
7	경희대
8	중앙대
9	서강대
10	한양대(서울)

평판도 부문은 1계단 상승해 신설 지표인 △고교생 선호 대학 5위 △학부모 진학 선호 대학 9위 △기업 신입사원 선발 선호 대학 10위에 올랐다.

학생성과 부문에서는 △창업 기업 수 9위 △순수취업률 12위 △유지 취업률 10위 △창업지원액 순위도 12위를 차지했다.

2025 정시모집 최종경쟁률 6.04대 1

서울캠퍼스는 2025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1313명 모집에 7937명이 지원해 6.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전형의 군별 경쟁률은 ▲가군 461명 모집에 2533명이 지원해 5.49대 1 ▲나군 494명 모집에 2585명이 지원해 5.23대 1 ▲다군 211명 모집에 1925명이 지원해 9.12대 1이다.

가군 모집단위에서는 ▲바이오환경과학과 9.2대 1 ▲수학교육과 8.67대 1 ▲에너지신소재공학과 8.43대 1 순으로 높은 경쟁률이 나타났다. 나군에서는 ▲의생명공학과 8.78대 1 ▲미술학부 조소전공 8.6대 1 ▲약학과 8.5대 1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올해 처음 선발하는 다군에서는 ▲열린전공학부(인문/자연) 130명 모집에 인문 710명/자연 541명이 지원해 10.14대 1과 9.02대 1의 높은 경쟁률이 나타났다. 또 단과대학 모집으로 신설된 바이오시스템대학 역시 25명 모집에 218명이 지원해 8.7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WISE캠퍼스는 622명 모집에 2913명이 지원해 4.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열린전공제의 도전과 기회

모교는 12월11일 원흥관 i.SPACE에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학제적 융합교육 : 열린전공제의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제8회 동국미래교육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학생 눈높이에 맞는 열린전공제 안내와 더불어 열린전공제 운영의 주요 과제 및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을 주관하는 김형배 교무팀장은 "동국미래교육포럼이 2020년 9월 출범한 이래 8회째를 맞이하며,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우리 대학의 향후 과제들을 공유해왔다"며 "이번 포럼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열린전공제를 중심으로 전공 쏠림 현상, 전공 선택 지원 방안, 중도이탈 방지 등 실질적인 고민을 다루는 자리인 만큼,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활발한 논의와 토론을 펼칠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8회 동국미래교육포럼 영상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 스마트폰으로 QR코드에 초점을 맞추면 링크가 나타납니다. 링크를 누르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포장기술의 새로운 변화 식품포장의

Global HUB!

주식회사 유상
YUSANG CO.,LTD.

072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240, 유상빌딩
Tel. 02) 2631-0066 / Fax. 02) 2672-1348

제36회 조계종 포교대상 종정상 수상



학교법인 이사장 돈관스님이 제36회 조계종 포교 대상 종정상에 선정됐다.

돈관스님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일상생활과 조화로운 지역포교 실천이라는 목표 아래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주지 소임을 역임했다.

템플스테이와 박물관 개원을 비롯한 가람정비와 불교대학 개설을 통한 교육포교를 지속적으로 전개했으며, 학교법인 동곡학원을 설립해 선화여자고등

학교를 지역 명문사학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했다.

또, 미래불자 양성에도 힘썼다.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등 각 세대 눈높이에 맞춘 지원은 물론 장학제도를 통해 2,000명의 불교계 장학생을 양성했다.

특히 동국대 29개 단과대학에서 불교동아리 창립을 견인하고, 불교동아리 학생을 대상으로 동시 수계법회(서울권 2,500명, 경주권 1,800명)를 봉행하는 등 종립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불교가치관이 인재양성에 자양분이 되는 바탕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제21회 대원상 특별상 수상



부산 흥법사 주지 심산스님(선학82)이 제21회 대원상 시상식에서 출가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심산스님은 전국의 군법당 불사와 국내외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 등의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특히 국내 청소년과 몽골, 인도, 태국 등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 문화와 불교 사상을 알리는 한나래문화재단을 설립해 포교와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대원상은 진흥원 설립자인 故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을 기리고 21세기 현대 사회에 적합한 불교정신을 알리기 위해 2003년 제정됐다.

심산스님은 '제21회 대원상 상금 회향식'을 마련해 수상을 통해 받은 상금 1,5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을 뮤지컬 신타르타 측에 전달하며 불교문화 콘텐츠 발전을 기원했다.

또, 대학생 불자들의 몽골 나무 심기 해외 봉사 동참 지원금으로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총동문회에 500만원을 전달했다.

임명 / 선출 / 취임

BBS불교방송 9대 이사장



수불스님(명예철학 박사)이 BBS불교방송 9대 이사장에 선임됐다.

수불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동국대 국제선센터 선원장, 아름다운 동행 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안국선원 이사장과 불교신문 사장 등을 맡고 있다.

미국 뉴저지주 시의원 당선



신창균(무역74) 동문이 미국 총선거에서 뉴저지주 팔리사이드 파크시 시의원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최다 득표로 당선됐다.

신 동문은 현재 뉴욕동문회장을 맡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연임



최진식(무역77) 중견련 회장이 제12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받아 연임한다. 임기는 2월부터 2028년 2월까지다.

최 동문은 2022년 제11대 회장에 취임한 이후 법인세율 인하,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등을 추진했다.

또한 심팩은 국내 최초의 합금철 전문 회사로 국내 프레스 업계 대표 중견기업으로 꼽힌다.

롯데호텔 대표 내정



정호석(경제84) 롯데지주 사업지원실장 부사장이 신입 호텔롯데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정 신임대표는 롯데그룹사의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경영 리스크를 관리해온 경영

전문가로 1991년 롯데알미늄(옛 롯데기공)에 입사한 뒤 롯데 정책본부 운영실, 롯데물산 기획개발부부장, 롯데지주 REVA(부동산 관리) 팀장을 역임했다.

2022년부터 롯데지주 사업지원실을 이끌며 롯데그룹의 수익성 중심 경영을 추진해왔다.

KBC홀딩스 부회장 취임



임채영(연영85) 前 KBC광주방송 대표이사 사장이 KBC지주회사인 KBC홀딩스 부회장으로 취임했다.

임 부회장은 1992년 KBS 입사, 1994년 KBC로 자리를 옮겨 광고사업팀장, KBC플러스 신사업본부장, 콘텐츠제작부장, 편성제작국장을 거쳤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김희중(경행85) 前 인천경찰청장이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김 동문은 전남 구례 출신으로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경찰에 입문해 강원경찰청 차지경찰부장, 경찰청 형사국장,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거쳐 2024년 인천경찰청장을 끝으로 31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쳤다.

주요 과제로 ▲교통약자의 안전 보장 ▲국민의 의견 경청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 ▲변화하는 경영환경 대응 ▲기존의 업무절차와 방법의 혁신 등을 강조했다.

HL디앤아이한라 수석부사장

김선준(경제85) 최고운영책임자가 HL그룹 정기 임원 인사에서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했다.

김 수석부사장은 입사 이후 주로 관리·구매 파트에서 경력을 쌓았다. 공사 관리/자재/동반성장담당(상무보), 현장 지원본부장 상무, 개발사업본부장(전무), 건축/개발총괄(부사장), COO(부사장)을 거쳤다.

KBS 아나운서 실장



한상권(경영89) 아나운서가 KBS 아나운서 실장으로 영전했다.

한 실장은 1995년 공채 21기 아나운서로 입사한 이래 주말 'KBS 뉴스광장' '역사스페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등 KBS의 대표 프로그램을 두루 진행하며 안정감과 중량감 있는 모습을 선보였다.

롯데면세점 대표 내정



김동하(산공90) 롯데지주 HR혁신실 기업문화팀장(전무)이 호텔롯데 면세점 사업부 대표로 내정됐다.

김 신임 대표는 1997년 롯데웰푸드에 입사했다. 롯데 정책본부 개신실, 롯데슈퍼 전략혁신부문장 등을 거쳐 2022년부터 롯데지주 기업문화팀장으로서 그룹 노무와 생산성 관리를 책임졌다.

삼성생명 부사장 승진



박해관(경영90) 동문이 삼성생명 2025년 정기임원 인사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박 부사장은 1994년 삼성생명에 입사해 2020년 전략1지원팀장, 2022년 FC지원팀장 상무, 2023년 GA사업부장 상무를 지냈다. 이번 임원 인사는 성과와 성장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이, 연차와 무관하게 발탁해 혁신을 가속화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SK C&C 텔런트담당 신규 임원



김민환(교육93) 동문이 SK C&C 2025년 임원 인사에서 텔런트 담당 신규 임원으로 선임됐다.

김 동문은 SK(주) C&C SKMS팀장, 매니지먼트 지원팀장, 행복추진담당 팀장, 컬처혁신담당(직무

대행), 변화추진담당(직무대행) 등을 역임했다.

육군 소장 진급 28사단장 취임



이종현(경제92) 동문이 2024 하반기 군 장성인사에서 소장으로 진급해 28사단장으로 취임했다.

이 장군은 WISE캡 퍼스 1121학군단 ROTC 34기로 임관했다. 1121학군단은 이승환(국사79) 장군과 이종현 장군 등 2명의 장성을 배출했다. 문선배 총동창회장은 28사단장 취임식에 참석해 이종현 동문을 격려했다.

군 장성인사 준장 진급



윤기선(경영93) 동문이 2024 하반기 군 장성인사에서 준장으로 진급했다.

윤 동문은 112학군단 ROTC 35기로 임관했다. 112학군단은 이민홍(불교60), 김행남(정치61), 차재익(불교62), 박상호(화학63), 조창현(경행64), 김만규(경제73), 29기 정덕성(영문87), 윤기선 등 현재까지 8명의 장성을 배출했다.

인천세관 통관감시국장



김희리(행정97) 평택세관장이 관세청 정기인사에서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장으로 전보 발령됐다.

풀무원 총괄CEO



이우봉(경대원) 풀무원 전략경영원장이 1월1일 자로 총괄CEO에 선임됐다.

이 총괄 CEO는 1988년 공채 4기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36년간 재무회계, 구매, 영업, 전략기획, 계열사 대표 등을 거치며 풀무원의 성장과 발전을 같이 한 공채 출신 첫 총괄CEO다.

신간 안내

수 상

임업인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전진표(임학60) 한국 임우연합회장이 제5회 임업인의 날 행사에서 임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전 동문은 평생 산림을 동반자로 삼고 산림 평화의 가치를 알리며 최고령으로 국내 제1호 산림평화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제5대 신사임당에 선정



하혜원(영문63) 동문이 신사임당 사모회와 실리콘밸리 리더스 그룹이 주최하고 산타클라라 바위스 파크에서 열린 신사임당 대

관식에서 제5대 신사임당에 선정됐다.

하 동문은 모범적인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신사임당의 덕목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왔다. 또, 밀피타스 커미셔너, 한인회 이사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봉사에 꾸준히 헌신해왔다.

한국시서울문학회 신인문학상



이석구(국문61) 동문이 한국시서울문학회에서 주관하는 종합문예지 출판기념식에서 신인문학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1월30일 은평구청 후원으로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제8회 문학청춘작품상



동시영(국문70) 시인이 제8회 문학청춘작품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동 시인은 2003년 '다중'으로 등단했다. 시집으로 '미래사냥' '낮선 신을 찾아서' '신이 걸어 주는 전화' '십일월의 눈동자' '시간의 카니발' (선집) '너였는가 나였는가 그리움인가' '비밀의 향기' '일상의 아리아' '펜아래 흐르는 강물' '마법의 문자' 를 펴냈다.

'한국의 인사총무 혁신 리더' 수상



경영지원플랫폼 전문기업 이트너스(주) 임각균(산공82) 대표가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한국의 경영대상' 에서 '한국의 인사총무 혁신 리더' 를 수상했다.

이트너스는 경영지원 서비스의 새로운 표준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영 시스템 베스트 프랙티스' 부문에서 경영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37회를 맞이하는 '한국의 경영대상' 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

서 주관하여 기업의 경영 역량과 혁신 활동에 대한 총체적 진단을 통해 기업 경영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고 우수 사례 발굴과 전파를 목적으로 제정한 상이다.

2024 대한민국인권상 수상



박윤석(법학83) 수원고등검찰청 검사가 세계인권선언 76주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가 12월10일 개최한 '2024 인권의날 기념식' 에서 '2024 대한민국인권상' 대통령 표창장을 수상했다.

자치경찰 학술상 수상



박동균(행정86) 대구한인대 교수가 한국치안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박동균 교수는 한국경찰연구학회장과 대한지방자치학회, 초대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사무국장)을 지낸 경찰학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내 최고의 경찰행정 전문가다.

한국치안행정학회는 전국 규모의 경찰과 범죄, 민간경비, 안전 등을 연구하는 국내외 1천여 명의 교수와 학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대규모 학술단체다.

제3회 한국출판편집자상 대상



김선정(국문89) 서해문집 편집이사가 제3회 한국출판편집자상 대상을 수상했다.

김 동문은 1997년 출판계에 입문해 27년간 편집자로 일하고 있다. 교실에서 책임기 수업을 하는 교사들의 체험담을 기록한 <함께 읽기는 힘이 세다>, 유라시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담아 큰 반향을 일으킨 <유라시아 견문> 3부작, 2,000여장의 사진이 동원된 <라이선스LP 연대기>, 역사·시사·지정학을 아우르며 러시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짚어보는 <러시아 지정학 아틀라스> 등 250여종의 책을 기획·편집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이기섭(법학99) 노무법인 코리아인 대표(노무사)가 중소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대표는 11월 8일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사)중소기업융합서울연합회 주최로 열린 '2024 서울융합교류 플라자' 행사에서 디지털 융합·혁신·성장 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그는 수도권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400여 회원사와 1만6천여명의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중소기업인 단체인 중소기업융합서울연합회 G밸리교류회에서 총무직을 맡으며 기업의 노무 관련 조언과 서비스를 펼쳐 호평을 받고 있다.

서정주·동국 문학 서적 출간



윤재웅 총장이 은사에 대한 그리움과 모교 문학의 전통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책 4권을 출간했다. 미당 서정주 문학의 기원을 찾아가는 문학 여행기 '질마재 이야기', 미당을 주제로 그간 집필해온 21편의 논문을 집대성한 '서정주학과 1, 2', 동국 인문학의 전통과 계보를 인물 중심으로 재편한 '동국문풍' 등이다. '질마재 이야기' 는 미당 시의 질감과 마음결을 따라가는 여행기이자 아름다운 사진과 함께 읽는 미당문학 입문서이다.

또한 미당의 자전적 일대기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 희귀 자료도 수록돼 문학 사료적 가치를 갖고 있다. '서정주학과 1, 2' 는 서정주의 업적을 기리면서, 개인적인 존경과 열정을 넘어 우리 사회가 기억해야 할 문화유산이자 지적 자산으로서 '미당학' 을 구축하고자 하는 저자의 열망이 담겨있다. '동국문풍' 은 석전 박한영을 시작으로 만해 한용운, 미당 서정주, 조지훈, 장호, 무산 조오현 스님 등 동국의 흔적을 간직한 여러 대문호의 작품을 분석하고 비평하면서 문학의 알짜와 세상의 미래를 진단하는 책이다.

▲질마재 이야기 (김은샘/1만9천8백원)

▲동국문풍 (정진코퍼레이션/2만5천원)

▲서정주학과 (동국대학교출판부/각2만원)

김성한 야구인생 50년 자서전



김성한(체교78) 야구선수가 야구인생을 담은 자서전을 펴냈다. 김 동문은 80년대 한국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최강의 타자로 82년부터 95년까지 14시즌 동안 해태 타이거즈에서 뛰면서 홈런왕 3회, 타점왕 2회, 장타율왕 3회, 최다안타 2회, 득점왕 1회 올랐으며 정규시즌 MVP 2회, 올스타전 MVP 1회, 골든글러브에 6회 선정됐다.

또한 시즌 30홈런과 20홈런-20도루를 한국프로야구 최초로 기록했고, 1982년에는 투수 겸 타자로 활약하며 10승-10홈런 이상(13홈런)을 동시에 기록한 유일한 선수이기도 하다. 은퇴 후에는 해태 타이거즈의 마지막 감독이자 기아 타이거즈의 첫 번째 감독을 지냈다.

(이로츠/1만8천원)

소설집 '트롯 킹 국민가수'



소설가 이은집(교대원79) 동문이 최근 소설집 '트롯 킹 국민가수' 를 출간했다. K-드라마나 K-팝이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음으로써 K-Novel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때, 방송작가로 활동해온 경력을 바탕으로 K-팝을 소재로 소설집을 펴냈다.

이 동문은 영등포여고, 여의도고교 교사로 30여년 교직생활을 했다. 단편집 '트롯 킹 국민가수' 에는 단편 '스타 탄생' '무지칼 배우' '너는 가수다' '트롯 프린스' 등 팝세계의 이모저모를 유니크하게 그린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다.

(교음사/1만5천원)

알림

관훈동 백상빌딩 302호 임대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302호

계약면적 : 209㎡ (63.33평) 전용면적 : 133㎡ (40.32평)

기타사항 : 중앙냉난방, 엘리베이터, 방문자 주차 가능, 사무실 내 화장실 포함 등

※ 임대문의 : 02-733-0303 / 010-3731-3991 (총동창회 사무처)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비 등은 동국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습니다.

• 동창회비 납부시 성명·입학년도·학과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단위 : 만원)

동창회비 국민은행 006001-04-237869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302-718184
 (예금주 : 동국대학교총동창회)

2024년 1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접수분

금액 · 성명 가나다 순

발전기금 100만원	 김성재 (정치) 아세아재산관리(주) 회장 40,000,000	 해담스님 (불대원) 불교대학원 총동문회장 4,000,000	 박순 (불교) 한국여류화가협회 이사장 3,000,000	 송석환 (농림경제) 동진기업(주) 회장 3,000,000	 김태현 (불교) 법무법인 창조 실장 1,000,000	 돈관스님 (영어영문)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1,000,000	 전순표 (농학) (주)세스코 회장 1,000,000					
	고문 100만원	 서영준 (법학) (주)중앙 회장	 송석구 (철학) 前 동국대 총장	 심경모 (영어영문) 前 파라다이스 대표이사	 홍파스님 (불교) 대한불교관음종 종정	부회장 100만원	 공기태 (화학공학) 세웅트레이딩(주) 대표이사	 김미향 (영어영문) 여자동창회 사무총장				
		 김남 (행정) DB손해보험(주) 부회장	 김한배 (연료공학) 오스카빌딩 대표이사	 류완하 (불교미술) 와이즈캠퍼스 총장	 민흥기 (법학) 삼신화성산업(주) 대표이사		 박순 (불교) 한국여류화가협회 이사장	 박종희 (회계) (사)한국도서관산업협회 이사장	 서승훈 (정치외교) 데오테크 대표이사	 성승스님 (불대원)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		
		 심산스님 (선학) 홍법사 주지	 이범주 (식품공학) 케이랜드 대표이사	 이승환 (국사학) 수원대학교 교수	 이충주 (체육교육) 제이서비스코리아 대표이사		 정석식 (공업경영) 성우정공 회장	 최유행 (한어) 영도한의원 원장	 홍석표 (경영) 경영학과 총동문회 회장			
		동국 장학회	 전화성 (컴퓨터공학) 씨엔티테크 대표이사 8,000,000	 전진선 (경찰행정) 양평군수 3,000,000	연회비 3만원 감응사 주지 (경북 성주) 낙가사 주지 (충북 보은) 도갑사 주지 (전남 영암) 백련사 봉림사 주지 (경북 영천) 봉정암사 주지 (서울 종로) 상원사 주지 (경기 양평) 성불사 주지 (경북 문경) 수선정사 주지 (경남 창원) 신원사 주지 (충남 공주) 쌍계사 주지 (전남 진도) 약사사 주지 (서울 강서) 영화사 주지 (부산 영도) 용주사 주지 (경기 화성) 용화사 주지 (충북 청주) 원효사 주지 (광주 북구) 장명사 주지 (강원 태백) 장춘사 주지 (경남 함안) 죽림정사 주지 (울산 울주) 청곡사 주지 (경남 진주)			 노정현 (행정) 류미라 (독어독문) 류재화 (경찰행정) 문봉구 (경제) 문상호 (불교) 박대우 (토목공학) 박성만 (전자공학) 박성조 (회계) 박성조 (경영) 박형주 (경제) 배주환 (전기) 상병현 (국사교육) 상운스님 (승가) 선범규 (통계) 심명섭 (상학) 심성희 (국어국문) 안경수 (상학) 안형모 (통계) 오창중 (경제) 원동춘 (수학교육) 유소규 (경찰행정) 유승미 (APP과정) 유승미 (APP과정) 윤일현 (경영) 윤재수 (건축) 이경성 (연극영화) 이규배 (정치외교) 이근재 (APP과정) 이기호 (영어영문) 이길자 (불대원) 이동우 (법학) 이석구 (국어국문) 이성민 (경대원) 이세준 (정치)	 이승규 (국어교육) 이승준 (일어일문) 이영범 (농학) 이일현 (물리) 이종광 (기계공학) 이종연 (농업경제) 이종주 (법학) 이중한 (경영) 이찬희 (사회교육) 이창진 (불교) 이태우 (경영) 이혜림 (회계) 이호정 (경영) 이호택 (임학) 임근엽 (회계) 임해도 (행정) 장흥수 (행정) 전민정 (APP과정) 정상훈 (법학) 정선순 (가정교육) 정용근 (행정) 정현중 (농림경제) 조권현 (국어국문) 조태희 (국어국문) 지원스님 (불대원) 채무홍 (농학) 청운스님 (불대원) 최상근 (식품공학) 최영빈 (체육교육) 최옥자 (불교미술) 최우락 (식품공학) 최중열 (토목공학) 하혜순 (불대원) 한강택 (경찰행정)	발전기금 김태욱 (기계공학) 매월 0.5 - 누계 : 7 (14회차) 동명사 매월 2 - 누계 : 258 (129회차)	동국인의 밤 - 협찬금 - 사대원 (회장 김석만) 50 현각스님 10 - 협찬품 - 동국대학교 - 와인 100병 동국대학교 총장 (윤재웅) - 로봇청소기 와이즈캠퍼스 총장 (류완하) - 마살스피커 이범주 (식품공학과 회장) - 화이트닝앰플 20세트 홍종표 (행정대학원 회장) - 간장세트 400개	
			평생회비 50만원 최종원 (법학)	상임이사 20만원 김경자 (영어영문) 김석희 (법학) 김용남 (행대원) 박성기 (국어국문) 박성호 (사학) 박태원 (법학) 손문영 (토목공학) 안대영 (무역) 이기엽 (국민윤리) 이동규 (행정) 이해석 (화학) 최명희 (행대원) 허봉주 (경대원) 황래열 (체육교육)	이사 10만원 김도연 (문예원) 김성호 (경제) 김승관 (경영) 김일수 (무역) 김재수 (행대원) 동훈스님 (불대원) 박동석 (임학) 박연웅 (산업공학) 박형배 (전자계산) 반석규 (경사원) 송휘 (서양화) 신상명 (미술) 어윤소 (경제) 예수해 (영어영문) 육문균 (경제) 윤종원 (한어) 이성국 (법학)		지도위원 30만원 김영화 (경찰행정) 성영석 (경영) 신쾌호 (법학) 안병창 (상학) 유여진 (미술) 이광호 (행정) 한대현 (경대원)					



우학스님 유튜브불교대학

- ▶ 자매채널 한국불교대학 비유디TV
- ▶ AI-붓다
- ▶ 영어채널 K-부처님마을



구독자 50만명 우학스님 법문

불교의 모든 것! 생활법문 신행상담

- ▶ 인터넷 . 사이버 불교대학
- ▶ 수행 - 금강경 독송, 관음정근, 대다라니
- ▶ 경전공부 - 금강경, 천수경, 법화경, 반야심경, 육조단경 등
- ▶ 멤버십을 통한 체계적 불교공부
(졸업장을 드립니다)



기도성취大도량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K-붓다 빌리지 (B.U.D 山海 세계명상센터) ☎ 053-474-8228

포 항 원 법 사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원법사 주지 해운스님에게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 하사



2024년 12월 9일, 인도 다람살라 티베트 망명정부 왕궁에서 제14대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원법사(元法寺) 주지 해운스님에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하사하셨습니다. 이 사리는 티베트 왕실에 대대로 전해 내려온 귀한 보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서 원법사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적멸도량의 위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DB손해보험의 약속대로
안전하길, 건강하길, 사랑하길

약속대로 이루어지길

함께, 약속 DB손해보험

